

世界石油무역도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최 근 세계무역의 보호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선진제국들이 中東으로 부터의 석유 제품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등 석유무역에서도 무역장벽이 높아가고 있다.

과거의 무역패턴을 살펴볼 때, 여타의 상품과 비교하여 에너지의 무역장벽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다. 지난 해에도 英國의 油價自由化 조치가 있었고, 또 캐나다, 日本, 호주에서 自由化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유럽 諸國이 中東의 石油製品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등 각 부문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이 구축되고 있다.

보호무역은 대체로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로서 국내 자원의 보호, 고용증대 및 고도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의 목적이 있다. 英國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北海油田의 광구분양에서 자국 경제에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가 하면 해양유전

개발에 관한 신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英國정부는 이에 대해 『完全하고 公正한 機會부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英國의 유전개발에 기여해 온 海外石油社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취해지는 보호무역으로서 OECD의 中東產 石油製品의 수입제한, 美國의 리비아產 石油製品의 수입금지, 英國의 對이스라엘 石油輸入 거부, 유럽의 南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무역규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과거와 같은 立法化에 의한 수입규제방식보다는 통상 自由貿易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난 10여년간 石油貿易에서 있었던 주요특징은 中東產 石油무역이 감소하고 非OPEC產 石油무역이 증대한 점, 製品무역이 증가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高油價로 인해 비교적 소규모의 深海油田이 개발되었으며, 이들 限界油

石油輸入 추이

(單位: 천B/D)

	1974	1979	1983	1984
北 美	7,015 (21.0)	9,020 (25.5)	5,310 (21.8)	5,720 (23.1)
西 歐	14,840 (44.5)	13,080 (37.0)	8,665 (35.6)	8,595 (34.7)
東 南 亞	1,385 (4.2)	1,970 (5.6)	1,995 (8.2)	2,035 (8.2)
日 本	5,430 (16.3)	5,605 (15.8)	4,145 (17.0)	4,305 (17.4)
기 타	4,660 (14.0)	5,675 (16.1)	4,240 (17.4)	4,095 (16.6)
計	33,330 (100.0)	35,350 (100.0)	24,355 (100.0)	24,750 (100.0)

石油 수출 추 이

(單位 : B/D)

	1974	1979	1983	1984
北 美	1,265 (3.8)	940 (2.7)	1,285 (5.3)	1,375 (5.6)
中 南 美	3,245 (9.7)	3,645 (10.3)	4,065 (16.7)	4,100 (16.6)
西 유 럽	245 (0.7)	520 (1.5)	860 (3.5)	860 (3.5)
中 東	20,050 (60.2)	20,435 (57.8)	10,355 (42.5)	9,845 (39.8)
北 아 프 리 카	2,625 (7.9)	3,425 (9.7)	2,180 (9.0)	2,290 (9.2)
西 아 프 리 카	2,545 (7.6)	2,645 (7.5)	1,425 (5.9)	1,670 (6.7)
동 남 아	1,400 (4.2)	1,915 (5.4)	1,400 (5.7)	1,600 (6.5)
共 産 圏	1,400 (4.2)	1,740 (4.9)	2,655 (10.9)	2,865 (11.5)
기 타	555 (1.7)	85 (0.2)	130 (0.5)	145 (0.6)
計	33,330 (100.0)	35,350 (100.0)	24,355 (100.0)	24,750 (100.0)

〈資料〉 Oil & Energy Trends, 85 / 12.

田을 개발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은 해외유출이 제한되어 石油무역의 장벽이 되고 있다.

한편 세계 石油製品貿易의 비중은 지난 74년의 15.8%에서 84년에는 24.3%로 늘어났다. 또 中東 및 北아프리카産 石油製品도 신 정유공장의 가동과 함께 늘어날 전망이어서 무역문제로 수입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中東지역 산유국들의 제품 무역비중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原油수출이 계속 감소되어 왔다는 점과 그 비중도 84년 11%로서 세계수준(24.3%)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방국가의 지나친 규제는 세계무역에害가 될 것이다.

石油貿易이 규제를 받는 것은 보통 국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다. 예로서 美國의 한 石油會社는 1988년까지 OPEC 新製品의 50%가

美國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한 학술단체도 美國과 그 동맹국들의 OPEC石油製品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어쨌든 에너지 업계는 세계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그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계각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에너지 업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어 여건에 따라 세계 무역패턴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石油製品 무역비중

(單位 : %)

	1974	1979	1983	1984
세 계	15.8	14.5	22.7	24.3
中 東	4.9	3.3	8.6	11.1

〈資料〉 Oil & Energy Trends, 85 / 12.

